

##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글말교실을 통해 깨달은 '듣는' 리더십)

이름	김하은
전공	사회학과
학번	20210458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글말특강 (9회차)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8, 말하는 것이 2’, 글말특강 9회차에서 교수님께서 강의의 시작을 여신 한 마디였습니다. ‘제 말을 하는 것이 8,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2’의 형태로 지내왔던 저는 이제껏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글말특강이라는 기회를 통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줄곧 반장과 학생회를 도맡아 하며, 국민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도 약 3년간 단과대학 학생회 운영진으로서 후배들과 동기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기에 ‘리더십’에 있어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리더십이란 ‘리더가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어 속도있게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또래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학생회 회의를 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 주동이 되어 이끌고, 회의 발언에 있어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말을 하는 것이 회의에도 효율적이고 학생회 부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줄곧 확신했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는, 제가 의견을 많이 내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회 부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자만심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제 오만과 편견이 깨진 것은 ‘12월 16일’이었습니다.

12월 16일은 제가 글말특강 9주차 강의를 수강한 날이자 지난 학생회의 송년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올해 3월 제가 몸 담았던 학생회의 마지막 행사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학생회 옛 동료들을 마주하여 인사를 나누고, 그간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료들의 말을 통해 든든했던 리더였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이보다 더 제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학생회 회의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학생회 동료들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과 리더가 업무를 대부분 하였기에 업무 분배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 학생회 부원으로서의 자기효용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있었다는 동료들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제가 정의하고 있던 리더십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의도했던 효율성이 아니라 팀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며 ‘서로에게 배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팀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그들에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왔던 것입니다.

송년회에 참여하기 전 수강하였던 글말특강에서의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배움이 떠오르며, 리더십에 대한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오로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가 되려면 ‘경청하고, 상대의 감정에 집중해서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23살이 되어서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고, 동료들에게 아쉬운 기억을 가지게 한 것을 깨달았다는 미안함에 반성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또 다른 ‘김하은’이 없도록 경청하는 저의 태도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라나는 대학생에게 진정한 교양을 가르치는 글말특강을 홍보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